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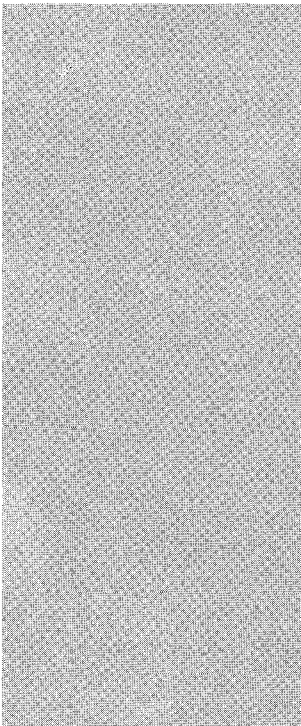


## “대안이 없다”

월간 “포장계” 발행 10년째로 접어들며 그간 흥미한 한국 포장계에서 독자가 요구하는 정보와 기사가 충족 되었느냐의 여부는 차치하고 업계의 길잡이로써 앞을 밝힌 업적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아직도 불투명한 앞날을 생각해 볼 때 한층 높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탁을 힘차게 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널리 이름난 사찰에서 고승과 명승이 밤을 낮 삼아 아무리 소리 높이 불경을 읽고 목탁을 크게 친다손 치더라도 아미타불(阿彌陀佛)이 있는 극락정토(極樂淨土)까지 전해지는 불공소식은 보잘 것 없는 미미한 분량이라고 비꼬는 고양이 사람이 없지는 않다. 이것을 보고 혹자는 다분히 정보전달수단의 미비에 기인하는 것이지 승려의 불심(佛心)을 나무랄 것이 못된다고 말한다. 사실이야 어찌됐던 간에 나는 “포장계”를 아끼는 심정에서 굳이 한마디 귀에 거슬리는 쓴소리를 한다면 “포장계”가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이밍 좋게 빠짐없이 전달되면서 만의 하나라도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전문 월간 잡지는 어느 것이나 정보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초고속통신망을 갖춘 세계에서 으뜸가는 IT산업을 가진, 말하자면 문명국가에서 살고 있다. 그 정보망을 종횡으로 구사하는 제3차 산업은 이미 국민 총 생산의 60%에 이르렀으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가지가지의 성과는 실로 막대하다고 하겠다. 이것은 명실공히 새로운 형태의 자원으로 자리잡고 있음은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 실정에서 볼 때 더할나위 없는 귀중한 자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월간 “포장계”를 포함하는 각종 서비스, 시간, 공간 등도 21세기에 있어서는 통틀어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즉 자원이 꼭 공간에만 있다고 보기



이 종 각

한국전자공업 회장

는 어렵기 때문이다.

UN이 발간한 세계자원보고서를 일별하여 보자. 거기에는 “자원이라 함은 인간이 사회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원천을 뜻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곧 이어서 “자원이라 함은 인간이 유효하게 쓰이느냐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원은 무슨 물질이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가 있는 것에 한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자원은 가치의 개념이고 사회과학적인 값어치이라는 뜻이다.

“포장계”를 포함한 정보화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가지는 가치가 한층 높아져야 함은 재론을 필요치 않는다. 지난 역사를 뒤돌아볼 때 어느 시대에도 정보는 범람하였고 넘쳐흘렀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 할 것은 꼭 필요한 시점에서 꼭 필요한 분량만큼의 정보이외는 별로 값어치 없는 잡음이며 머릿속을 번거롭게 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실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남부 빅토리아호에서 발원하여 장장 6,700km를 북쪽으로 흘러 이집트를 관통하여 지중해로 유입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강이다. 하천의 길이가 긴만큼 하류에 있어서의 강우량에 관계없이 항상 강물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때로는 예고도 없이 범람하여 큰 재해를 가져오기도 한다. 지금부터 5,000년전 파라오대왕은 나일강 상류에 두곳 아스완과 나빠다에 관측소를 설치하고 관측사로 하여금 매일의 기상과 나일강의 흐름을 낱낱이 기록에 남기도록 하였고 무슨

이변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하루에 알리도록 엄하게 명하였다. 여기에는 그 알려야 할 정보가 나일강의 유속보다 다 빨리 하류에 전달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붙어있었다. 하기야 사도가 지나간 후에 나팔을 불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일강의 유속도 일정치 않아 때로는 빈번히 실패하고 처형당한 사실이 그 당시의 기록에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정보는 나일강의 물이 증가추세에 있느냐 또는 감소의 경향에 있느냐 이지 매일매일의 사소한 변동이 아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류에서 씨뿌리고 거두어 드릴 것이 아닌가. 나는 종종 “포장계”에서 이와 유사한 사실을 발견한다.

9.11 사태후 구안보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성되려고 하고 있어서 불안하다. 이 과도기에 포장 언저리에서 밥벌어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불안하기는 매일 반이다. 그날그날 꾸려나가기 어렵고 힘이든다. 어찌어찌 하다 움켜쥔 이 생업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흥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다. 그렇다고 실을 바늘허리에 땀수는 없는 노릇이다. 아무리 고상한 이상론도 현실위에 굳건해야 말이된다. 누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길잡이가 될 것인가. 대안이 없다. 쓰나나나 “포장계”에 맡겨보자. 바라건데 심기일변 새로운 각도로 수많은 정보를 수집 분류하고 정리해서 적재적소로 보내고 알려서 다 같이 살길을 찾기에 나와나가 있을 수 없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일강 하류의 기록에는 “부정확한 정보라고 외면하고 눈을 감으면 적막이 이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번 음미해 볼만한 대목이다. ☐